

국문 등재 기재 단교

* 팀NO : 2018-09 2018 단기선교팀 신청서 (2)										선교위원회 확인		
1. 신청부서 : 스리랑카 (1팀) 공항 : / 2 교구 / 팀										담당	분과장	위원장
2. 사역지 : 웰리마다 (공항 :										이영준	김영환	이성석 4/1
3. 사역기간 : 2018 년 06 월 05 일(화) ~ 06 월 13 일 (수) / (8)박(9)일												
NO	직책	직분	성 명(한글/영문)		교구	CMTC	교적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 소	E-Mail
1	팀장	권사	김선자	Kim sun Ja	12		86-133					
2	총무	권사	박순복	Park Soon Bok	15		91-944					
3	서기	권사	이명애	Myung Ae Lee	12		88-397					
4	회계	집사	이인숙	LEE IN SUK	12		90-475					
5	의료	권사	이수례	LEE SU RYE	12		92-326					
6	부서기	집사	우병희	WOO BYEONG HEE	2		91-1134					
7	부회계	전도사	이복순	LEE BOK SOON	12		1679					
8	찬양	권사	전경자	JEON KYUNG JA	12		3359					
9												
10												
11												
12												
13												

* CMTC선교훈련을 수료하신 분만 신청하여 주십시오. 선교수련회는 1차심사후 3차심사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S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교구(부서)장 확인



91-41-2 42111

선교 소감문

스리랑카 1팀 2018년6월5일-13일 김선자 ⁽²⁾ ⁽⁴⁾ ~~첫사~~

주님께 지상명령을 받들어 스리랑카 웰리마다 지역으로 올해도 8명에 단기선교사들은 성령에 인도하심 따라 다녀 왔다.

자신에 방법과경험 지혜를 내려놓고 성령에 인도하심 따라 간다고 기도는 했지만 올해 4번째가는 곳이라서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들은 더 준비하고 더 사역을 잘 해보겠다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생각이었을뿐. . .

성령님은 우리를 전혀 생각지도 아니한 사역을 시키셨고 준비한 사역지 사역 방법은 사용 할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회에서는~~ 성령님에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하게 하였고. 우리에게 사역 “내일일은 난 몰라요” 방법으로 나갔을 때 사도행전적인 선교를 할수 있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 지라도 그 길을 인도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일과 방법을 성령님께 의뢰해야 하며 주님께서 뜻을 보이실 때 힘써 그길로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는 사역을 해 나가기로

한마음으로 기도 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아니한 사역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었다. 주일 예배때는 지난해 보였던 얼굴들이 안 보이고 교회가 썰렁한듯하여 안타까워 하고 있던 차에 전 전날 산동네 천막촌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며 초청했던 어린이들이 그 먼거리를 걸어서 동생들을 안고 업고 옷도 깨끗이 빨아 입고 정결한 모습으로 땀을 흘리며 교회당으로 들어 올 때 그 어린아이들에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는 듯 했고 그들을 맞이 할때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예배 시간 내내 그들에 예배모습을 보며 감사의 눈물에 기도를 드렸다.

주여 저 어린 영혼들을 통해서 스리랑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믿음에 주에 종들이 나오게 하소서. 뜨겁게 기도 하는 시간 이었다

~~선교에~~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현지에서 알게 하시고 선교에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 세운 하나님 사역에 부름 받아 복음 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팀은 계속해서 스리랑카 웰리마다 지역에 뿌려진 복음에 씨앗들 싹이 나고 열매 맺기를 그리하여 스리랑카 가 불교국가에서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기를 계속 주께 기도 할 것을 나누며 기도하며 사역을 마감 하였다...

스리랑카 선교를 다녀와서

이미 두번 이 지역을 다녀와서

이전에 했던 경험을 토대로 어린이 사역과 노방 전도를 위한 준비를

해갔으나 주님은 축호 전도와 아픈 환자들을 보게 하셨고

그곳에서 주님이 하신일 들을 보게 하시므로 철저히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셨고 남은 사역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 하며 나아가게 하셨다

스리랑카 가정엔 거의 모든 가정에 불상과 우상 들이 거실 한 켠 에 놓여 있는 데

한 가정에는 거실을 거의 차지 할 만큼 크고 조명 시설 까지 있는 집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하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 화를 내며 뭐라 하였다

그때 영접 기도를 하던 두 명 중 한명이 일어나 불상에 조명을 켜고 테이블을 켜려

했고 한사람은 끝까지 앉아 영접기도를 하는 것을 보며 같이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거부

하는 자와 믿는 자의 길을 보는 것 같았다

다시 한 번 구원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

또 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 한다”고 하였을 때

우연히 복음을 듣게 되고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자신이 예수님이 진짜 인가 생각된다고 고백하는 영혼,

집수리하다 고관절을 다쳐 누워 있던 젊은 청년, 머리가 아파 성장 하지 못한 아이들, 다리 아픈 영혼, 가슴이 아픈 영혼, 산동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던 아이들,

그곳에서 주님의 긍휼히 여겨 주심을 갈망 하는 눈동자와, 목소리 높혀 예수사랑 하심을 찬양하는 소리, 복음을 들으며 예수님을 믿겠다는 청년들의 고백, 오늘도 복음 들고 나아가는 현지인 선교사 가족들, 이모든 것 위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선교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복음을 듣게 되었고 여러 번 같은 우연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임을 알게 하기 까지 열정 있는 증거자의 삶이 계속 되기를 소원 하며

15교구 박순복 권사

팀 번호 :2018-09

스리랑카(웰리마다)

김선자 팀장

이 명 애 찬사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우리의 영적 전쟁은 시작 되었다.

콜롬보에 밤 늦게 도착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피곤한 몸을 아침에 새 힘을 주심으로 웰리마다로 출발하였다. 가미니 목사 부재에도 사모인 헛싸니와 함께 축호 전도와 노방 전도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짧은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만국어이신 영적인 대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하여 그들의 영적인 문이 조금 열리는 걸 느끼게 되었다. 일곱 번을 심방해야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이제 네 번 기도하고 심방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소망을 갖고 다음 발걸음을 옮긴다. 심방 가운데 때로는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였지만 주님의 깊은 계획을 누가 알랴. 다시 힘을 얻어 다음 사역을 소망하며 사역을 마치고 돌아 왔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린다.

일일 : 2018-09

일장 : 김 서자 일장

소리랑가 1월 이 안쪽 일사

소리랑가 월리마라이 4번째 신조는 라너왔다.

무엇하: 거대한 바는 해마남의 땅을 전한 북쪽의 도리로
시용하신 해마남께 감사는 드린다

매번 클러려나 영상클러려를 통하여 나의 정령과 생각을 바쳐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간다 하리만 기다리리라 내가
언제나 무너진 땅에 올라와 생각의 리저리까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없도록 기도하리라

여러이시여나 축복 받으. 많은 주미는 해가지만 여러이시여나 순종하리라
전하리 너희 많은 아사함이 있거니와 이대로 해마남의 인도하심에
생각하: 한가씩 한가씩 축복 받으는 통하여 주님께 선택하라.

바다 많은 새들은 만물이 주께로 순종한 땅의 새들이 다
웃어왔을지라도. 주님의 새들이 웃는 땅에 있어 많은 새들이 땅에가
웃어왔을지라도

또한 여러 새들이 가버림새의 여러 형제들 아시도 주님께서
다른 여러 새들은 한해로 주셔서 는 성령충만함으로 갈망한 양들은
실한 새들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
은혜로 소원할지라도 기도하리라 여중하리라.

주님 감사 합니다

이수혜 찬사

어두운 입술로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로 축호전도를 하였는데 잘 받아 주는 지체도 있지만
나가고 소리치는 지체도 있고 한가점에서는 세 여자 중 한
여자가 큰 소리 내고 복상에 복을 주고 야단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을 주셔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영접기도 하고 기도로 마무리 하였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주님 감사 했습니다 축호전도 하는데 마다
아파있는 지체가 많았어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확신으로
기도 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
합니다 또 보석같은 성도를 만났습니다

집에 들어 오리하여 들어가 앉아 애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이름잔나르) 예수님을 믿는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어웃여러 여자들이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동네에서
너때문에 다 예수를 믿는다고 뽕박이 심해서
모두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지만 자기는 가족 몰래
새벽 4시 반이면 하나님께 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분이 주보를 갖다 주셔서 너무 감사
하게 보고 있다고 주보를 보이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백 합니다 뽕박받은 그 성도가 계속 속히 마음
놓고 주를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바치고 있습니다

기도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스리랑카 사역보고서>

이복순A 전도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팀 팀모임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하며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였지만 역시 선교는 우리의 계획과 방법이 아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다시 한 번 체험하고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어눌한 말로 전하는 복음을 집중하여 들으며 영접기도를 따라하신 분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께 복음을 전하고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자 힘들었던 얼굴들이 환하게 빛나던 분들, 산동네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어린이 사역을 할 때 눈빛을 반짝이며 열심히 듣던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들에게 전했던 “예수님 외에 구원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스 와한세 오보더 아더레이”(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뿐이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스리랑카 웰리마다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도록 늘 기도합니다.

3개월 동안 말씀과 기도로 준비했다곤 하지만 현실적인 일로 인하여 무척 어수선하고 정돈되지 못한 마음으로 사역을 떠났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죽호 전도 사역중 하사나 사모님 한 가정집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거기서 가정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에서나 있을것같은 큰 불상이 집안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 함께 동행 하심을 믿고 시분 아주머니께 의뢰로 다가가 ~~전도~~ 복음을 전했다. 두분은 듣고 영접기도까지 했으며 한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데로 갔다.

복음을 들은자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주관하시어 열매 맺기를 주님께 간구한다.

다음날, 가파니 목사님 학창시절 담임 선생님댁을 방문했다.

학창시절 목사님은 아주 심각한 문제아였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생명의 복음을 듣고 스승님을 찾았다.

지긋지긋한 피로로 인해 말씀을 다 듣고 영접기도까지 하셨다.

어릴적 문제아였던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주의 종이 되었으니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다.

이번 사역중 여러가지 부족했던 부분들,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들, 대려 볼지 못했지만 연약한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분까지 복음 선포에 힘을주시길 소망한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정순과 선김으로..." 선교하라는 주님의 생각이며
나를 내로 다짐하며 왔지만 정작 선교지에서
실행하는데는 부족함이 많이 하나님께
부끄럽고 저동한 것 밖에 없네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사람들에게 우리가 준비해간 15개의
책은 원장의 언어로는 한계도 있어 복음을
전하고 영성기도 가지 하였지만 정작 그사람들과
유관한 언어도움이 이루어지지 않아 빠른
상생함과 이해를 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종교 관련 언어를 준비하지 못한 후회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가르치며 꽃피고
영매있게 하신다는 우리집나들이시니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들의 마음씨가 목숨의
뿌리가 되며 기도합니다.

우리원원들을 선교지로 보내고 사역을 위해
열심을 다하며 기도하며하신 과묵하신 과장님
과주사님을 비롯하여 후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웃과 사랑과 평